

스마트스토어 · 온라인 셀러

온라인 셀러 세금 안내서

세금이 처음인 초보부터
절세가 고민인 단계까지

초급

완전 초보 셀러편 · 9장

중급

플랫폼별 매출집계편 · 8장

고급

절세 · 확장 · 리스크편 · 6장

세무법인 서진

Seojin Tax Account Consulting

이룸권 세무사

2026년 8월 기준

이 책을 만든 이유

셀러를 만나면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세금은 아무도 안 알려준다**”였습니다.

사장님은 장사 전문가지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몰랐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부터 절세 설계까지, 셀러가 알아야 할 것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어려운 말은 최대한 뺐습니다.

처음이라면 초급부터, 매출이 커지셨으면 중급이나 고급부터 보셔도 됩니다. 각 장은 독립적으로 읽히도록 썼습니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것

세금을 혼자 다 처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조를 알아야 좋은 질문을 할 수 있고, 좋은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받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마세요

이 책은 통독용이 아닙니다. **지금 막히는 것 하나만 찾아 그 장만 보셔도 됩니다.** 차례에서 제목만 훑고 걸리는 것 한두 개만 펴 보세요. 각 장은 한 쪽으로 끝나고 독립적으로 읽힙니다.

전부 읽으면 40분, 필요한 장만 보면 3분입니다.

읽기 전에

이 책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세법은 매년 개정되고, 플랫폼의 화면과 정책도 수시로 바뀝니다. 각 장 끝의 **확인 포인트**는 본인 상황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부분을 표시한 것입니다.

차례

23개 장입니다. 순서대로 읽으셔도 되고, 필요한 장만 보셔도 됩니다.

초급

완전 초보 셀러편

4 - 13쪽

1 사업자등록과 간이·일반 선택 2 통신판매업 신고 3 통장과 카드 분리 4 내 세금 달력 5 홈택스 세팅
6 첫 부가세 신고 7 증빙이 곧 돈 8 개업 초기 부가세 환급 9 개업 첫 달 다섯 가지

중급

플랫폼별 매출집계편

14 - 22쪽

1 정산액은 매출이 아니다 2 플랫폼별 매출 뽑는 법 3 수수료·쿠폰·포인트 4 신고용 매출자료 정리
5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6 상시 경비 최적화 7 간이에서 일반으로 8 재택·1인 셀러 경비

고급

절세·확장·리스크편

23 - 30쪽

1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2 종합소득세 절세 설계 3 해외판매 영세율과 환급 4 법인 전환 타이밍
5 매출 신고 리스크 6 직원을 쓸 때

어디부터 읽을까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거나 첫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초급**. 신고는 해봤는데 매출 집계가 헷갈린다면 **중급**. 매출이 커져서 절세·법인·해외판매가 고민이라면 **고급**입니다.

완전 초보 셀러편

스마트스토어를 열고 세금이라는 말에 이미 막막하신 분을 위한 파트입니다. 세금은 겁낼 것이 아니라 순서만 알면 되는 일입니다. 사업자등록부터 첫 부가세 환급까지, 초보가 밟아야 할 길을 하나씩 짚습니다.

-
- 1 사업자등록, 언제 어떻게 하나
 - 2 통신판매업 신고
 - 3 사업용 통장과 카드부터 분리하기
 - 4 내 세금 달력
 - 5 홈택스 세팅
 - 6 첫 부가세 신고, 흐름만 잡기
 - 7 증빙이 곧 돈입니다
 - 8 개업 초기 부가세 환급
 - 9 개업 첫 달, 이 순서대로 다섯 가지

초급 01

사업자등록, 언제 어떻게 하나

원칙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다만 스마트스토어는 입점할 때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하므로, 실제로는 팔기 전에 미리 내는 것이 보통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도 됩니다. 등록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리는 것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입니다. 이 아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로 전환됩니다.

여기서 매출은 **부가세까지 포함해 고객이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말합니다. 세법에서는 이것을 공급대가라고 부릅니다. 고객이 11,000원을 결제했으면 그대로 11,000원으로 세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결제된 돈 전부**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숫자만 보면 간이가 유리해 보입니다. 부담률이 낮으니까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물건·장비를 사면서 낸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판정 기준	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 (부가세 포함)	1억 400만원 이상 또는 본인 선택
부가세 부담	업종별 대략 1.5~4%	10%
부가세 신고	1년 1회 (1월)	1년 2회 (1월·7월)
매입세액 환급	안 됨 (초과분 환급 불가)	가능
맞는 상황	초기 투자가 적고 소규모	장비·초도물품 등 초기 투자가 큼

판단 기준은 하나

내 초기 투자에 붙은 부가세가 얼마인가. 개업하면서 장비·초도물품에 부가세 포함 목돈을 쓸 계획이면, 그 매입세액을 돌려받으려고 일부러 일반과세로 시작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무조건 간이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매출이 기준 아래여도 **업종에 따라 간이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중급 07 참조). 한 번 정하면 되돌리기 번거로우니 등록 전에 확인하세요.

초급 02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팔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절차**입니다.

신고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나오고, 이 번호는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이면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된 거래는 횟수에 넣지 않습니다. 막 시작해서 거래가 거의 없다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 자체에 드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신 **등록면허세**라는 지방세가 붙는데, 매년 1월에 부과되며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면제는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기준이 보는 것은 **직전 연도**입니다. 거래가 50회를 넘긴 해가 지나면 그다음 해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여서 면제였던 경우도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그 사유가 사라집니다**(중급 07 참조). 매출이 늘고 있다면 연초에 한 번씩 확인하세요.

순서

사업자등록 → 통신판매업 신고 → 스마트스토어 판매자 정보에 신고번호 입력. 이 순서로 진행하면 막히는 곳이 없습니다.

확인 포인트 · 면제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있습니다(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 본인 판매내역의 거래 횟수를 직접 세어보고, 등록면허세 금액은 지역마다 다르니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초급 03

사업용 통장과 카드부터 분리하기

가장 쉬우면서 가장 많이 미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룰수록 비용이 커집니다.**

개인 통장과 사업 통장이 섞이면 나중에 무엇이 사업 지출이고 무엇이 생활비인지 가릴 수 없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때 경비로 넣을 수 있었던 지출이 증빙을 못 갖춰 그대로 날아갑니다.

세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용 통장 만들기

매출 입금과 사업 지출을 여기로만 돌립니다.

2

사업용 카드 정하기

새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카드 하나를 사업 전용으로 정하기만 해도 됩니다.

3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

등록해두면 그 카드로 쓴 지출이 국세청에 자동 집계되어 경비 정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주의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등록 이후 사용분부터** 집계됩니다. 소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업 초기에 바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포인트 · 복식부기 의무자에게는 사업용 계좌 신고가 의무이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습니다. 매출이 커지면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급 04

내 세금 달력

셀러가 챙길 신고는 크게 둘입니다.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유형에 따라 횟수가 달라집니다.

시기	무엇을	누가
1월 25일	부가가치세 (하반기분)	일반과세자
1월 25일	부가가치세 (연 1회분)	간이과세자
5월 31일	종합소득세	모든 개인사업자
7월 25일	부가가치세 (상반기분)	일반과세자
다음 달 10일	원천세	직원·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달 기준

하나 더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개인은 **4월과 10월에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직전 신고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고 확정신고 때 정산하는 것이라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닙니다. 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나오지 않습니다.

부가세와 종소세는 다른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잠시 보관한 남의 돈**입니다. 고객에게 물건값과 함께 받아둔 세금을 나라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번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둘을 섞어 생각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부가세로 받아둔 돈을 운영자금으로 쓰다가 신고 때 목돈이 나가 곤란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권하는 습관

매출에 포함된 부가세는 **따로 떼어 모아두세요**. 별도 통장이면 더 좋습니다. 신고 때 돈이 없어 당황하는 일이 사라집니다.

확인 포인트 · 본인이 간이인지 일반인지에 따라 신고 횟수가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초급 05

홈택스 세팅

신고를 직접 하든 맡기든, 홈택스 계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처음 한 번만 세팅해두면 그 뒤로는 편해집니다.

1 홈택스 가입과 로그인 수단 준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등록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앱으로 같은 계정을 씁니다.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경비가 자동으로 집계됩니다. 등록 전 사용분은 소급되지 않으니 빨리 하는 편이 좋습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 설정 확인

업종에 따라 의무발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면 기한 내 가맹 등록이 필요합니다.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환경 준비

사업자 고객에게 판매할 일이 있으면 필요합니다.

세무대리인을 두더라도

홈택스 계정은 직접 갖고 계시는 편이 좋습니다. 내 신고 내역과 자료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확인 포인트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과 가맹 기한은 업종별로 다르고 미가입 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본인 업종코드로 확인하세요.

초급 06

첫 부가세 신고, 흐름만 잡기

부가가치세 계산은 한 줄입니다.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는 것.

매출세액 받은 세금 고객에게 물건값과 함께 받아둔 부가세	매입세액 낸 세금 물건·서비스를 사면서 내가 낸 부가세
---	--

이 둘의 차액을 냅니다. 낸 세금이 더 크면 오히려 돌려받습니다. 개업 초기에 환급이 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신고 준비는 이 순서

1	매출 자료 뽑기 플랫폼의 부가세 신고자료를 결제일 기준으로 받습니다.
2	매입 증빙 모으기 매입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 명세, 현금영수증.
3	결제수단별로 나누기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기타로 구분해 넣습니다.
4	신고·납부 기한 내에. 납부할 돈은 미리 준비해둡니다.

확인 포인트 · 첫 신고는 흐름만 이해하고 자료를 정확히 모으는 데 집중하세요. 계산은 홈택스가 대부분 해줍니다. 자료가 틀리면 계산도 틀립니다.

초급 07

증빙이 곧 돈입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증빙이 없으면 세금에서 빼주지 않습니다**. 경비 처리의 전제는 지출이 아니라 증빙입니다.

증빙	언제 받나	효과
세금계산서	사업자에게 살 때	경비 + 매입세액 공제
사업용 카드 결제	카드로 결제할 때	경비 + 매입세액 공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현금 결제 시 사업자번호로	경비 + 매입세액 공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명의로 받은 것	사업 경비로 쓰기 어려움
증빙 없음	—	경비 인정 어려움

현금 쓸 때 한 가지만

현금영수증을 받을 때 **개인 휴대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세요. 같은 지출인데 이 차이 하나로 경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확인 포인트 · 접대성 지출이나 개인 사용분은 경비·매입공제에 제한이 있습니다. 지출 성격에 따라 갈리므로 애매한 항목은 미리 확인하세요.

초급 08

개업 초기 부가세 환급

개업 초기에는 매출보다 지출이 큼니다. 그래서 **낸 세금이 받은 세금보다 커지고, 그 차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받은 세금 (매출세액) 30만원 초기라 매출이 적음	낸 세금 (매입세액) 120만원 장비·초도물품 등 투자
--	--

이 경우 차액인 **90만원을 환급**받는 구조가 됩니다.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조기환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시설투자로 환급이 크게 날 상황이면 정기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신고**해서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자금이 빠듯할 때 숨통이 트입니다.

지금 하실 것

개업을 준비하며 쓴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버리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전 지출도 증빙이 있으면 환급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환급은 일반과세자 기준이며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큰 투자 전에 과세유형부터 확인하세요.

초급 09

개업 첫 달, 이 순서대로 다섯 가지

여기까지 읽고 “그래서 뭐부터 하지” 싶으시면, 이 다섯 개만 순서대로 뺏으시면 됩니다.

1

사업자등록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비용 없습니다.

2

간이와 일반 결정

내 초기 투자에 붙은 부가세가 얼마인지부터 보고 고릅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또는 면제 확인

관할 구청·정부24에서.

4

사업용 통장·카드 준비

개인 것과 분리합니다.

5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 등록

경비 자동집계 세팅. 등록 전 사용분은 소급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다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앞 단계에서 만든 것을 뒤 단계에서 그대로 쓰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초보 셀러가 갖춰야 할 세금 기초는 다 잡힌 것입니다. 다음은 매출이 붙기 시작할 때 마주치는 문제들입니다.

플랫폼별 매출집계편

매출이 붙기 시작하면 신고를 직접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이 **매출을 잘못 세는 것**입니다. 플랫폼별로 매출을 정확히 뽑아내고 신고 실수를 없애는 법을 다룹니다.

-
- 1 정산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 2 플랫폼별 매출 뽑는 법
 - 3 수수료·쿠폰·할인·포인트
 - 4 신고용 매출자료 실전 정리
 - 5 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구분
 - 6 운영 단계 상시 경비 최적화
 - 7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시점
 - 8 재택·1인 셀러 경비

중급 01 · 가장 중요한 장

정산액은 매출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통장에 넣어주는 돈은 매출이 아니라 **정산액**입니다. 여기서 신고가 통째로 어긋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고객 결제 총액 100,000원 이것이 매출입니다. 신고 기준.	통장 정산액 85,000원 수수료·쿠폰이 빠진 뒤 남은 돈.
---	---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수수료율은 플랫폼과 상품마다 다릅니다.

정산액은 판매수수료와 쿠폰, 할인이 이미 빠진 금액입니다. 그런데 세금에서 말하는 매출은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한 총액**입니다. 고객이 10만원을 결제했으면 매출은 10만원입니다.

통장에 8만 5천원이 들어왔다고 8만 5천원으로 신고하면 **매출을 줄여 신고한 것**이 됩니다. 플랫폼과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므로 나중에 대사됩니다.

원칙은 한 줄

고객 결제 총액이 매출이고, 거기서 빠진 수수료는 따로 경비로 처리합니다. 수수료를 매출에서 미리 빼는 것이 아니라, 매출은 총액으로 잡고 수수료는 비용 칸에 넣습니다.

확인 포인트 · 신고 전에 통장 입금 합계와 신고 매출 합계가 같은지 한 번 보세요. 같다면 정산액으로 신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중급 02

플랫폼별 매출 뽑는 법

핵심은 하나입니다. **정산 화면이 아니라 매출·세무 자료를 봐야 합니다.**

많은 플랫폼이 부가세 신고자료 또는 세무 리포트를 따로 제공합니다. 이것을 쓰면 결제수단별로 이미 나뉘어 나와서 신고가 훨씬 수월합니다.

플랫폼	들어갈 곳	받을 자료
스마트스토어	판매자센터 > 정산관리 > 부가세신고내역	결제수단별 매출
쿠팡	판매자포털 > 정산 > 매출내역·세무자료	매출·수수료 내역
11번가	셀러오피스 > 정산 > 부가세·매출자료	결제수단별 매출
오늘의집	파트너센터 > 정산 > 매출·세무자료	정산·매출 내역

기간은 결제일 기준으로

상반기분이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이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산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끊어야 숫자가 엉키지 않습니다.

메뉴 이름이 다르면

플랫폼이 화면을 자주 바꿉니다. **정산 · 매출 · 세무 · 부가세** 네 단어로 검색해 보세요. 그 근처에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위 메뉴 위치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화면에서 확인하시고, 여러 플랫폼을 쓰신다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급 03

수수료·쿠폰·할인·포인트

가장 헷갈리는 구간입니다. 기준은 누가 부담했느냐 하나입니다.

항목	매출 계산	비용 처리
판매수수료	매출에서 빼지 않음 (총액이 매출)	지급수수료로 경비,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공제
판매자 부담 쿠폰·할인	그만큼 매출 감소 (에누리)	—
플랫폼 부담 쿠폰	결제 총액이 매출	—
포인트·적립금	부담 주체에 따라 다름	자료의 구분 확인 필요
반품·취소·교환	순매출로 차감	—
택배비·광고비	매출과 무관	경비 처리, 증빙 필수

헷갈리면 이 한 줄

내가 깎아준 돈은 매출이 줄고, 남이 채워준 돈은 매출 그대로입니다.

반품은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매출은 결제 총액이 아니라 **반품·취소·교환까지 반영한 순매출**입니다. 100만원이 결제되고 15만원이 반품됐다면 매출은 85만원입니다. 앞의 실수들이 세금을 덜 내는 쪽이라면, 이건 **안 내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실수입니다.

확인 포인트 · 쿠폰·포인트 부담 주체는 플랫폼마다 처리가 갑니다. 자료에 판매자·플랫폼 구분이 없으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중급 04

신고용 매출자료 실전 정리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은 총액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별로 쪼개서** 넣어야 합니다.

왜 나누느냐면, 국세청이 카드사·현금영수증 자료를 이미 갖고 있어서 신고한 숫자와 맞춰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주는 부가세 신고자료가 결제수단별로 나뉘어 나온다면 그대로 옮겨 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	세무 리포트부터 찾기 정산내역이 아니라 부가세 신고자료를 받습니다.
2	결제일 기준으로 기간 끊기 신고 대상 기간에 정확히 맞춥니다.
3	플랫폼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기 매출이 적은 채널일수록 잊기 쉽습니다.
4	수수료 세금계산서 모으기 매출을 총액으로 잡았다면 수수료는 경비로 들어가야 짝이 맞습니다.
5	반기 끝나면 그 달 안에 폴더에 저장 신고 임박해서 몰아 뺏으면 기간이 엉킵니다.

확인 포인트 · 자료는 미루지 말고 반기가 끝나는 즉시 저장해두세요. 플랫폼이 과거 자료 조회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급 05

카드·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구분

이 셋을 확실히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매출을 두 번 세는** 사고가 납니다.

구분	언제	주의점
신용카드 매출	고객이 카드로 결제	카드사가 국세청에 자료 제출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 결제 + 현금영수증	발행 누락 확인
세금계산서 발행분	사업자 고객에게 발행	카드로도 받았다면 카드매출에서 차감
기타	위에 안 잡히는 매출	빠뜨리면 축소신고

함정은 여기입니다

사업자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카드 매출로도 잡히고 세금계산서 매출로도 잡혀서 한 건이 두 번 계상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 금액을 **카드 매출에서 빼주는 조정**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셀러는

소비자 대상 판매가 주력이라 카드와 현금영수증만 신경 쓰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에게 판 건이 있을 때만** 챙기시면 됩니다.

확인 포인트 · 이중계상 조정은 자료가 겹칠 때만 필요합니다. 본인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을 보고 판단하세요.

중급 06

운영 단계 상시 경비 최적화

매출을 잘 잡으면 반은 온 것입니다. 나머지 반은 경비입니다. 다만 **증빙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경비 항목	챙길 증빙	매입공제
광고비	세금계산서 · 사업용 카드	증빙 있으면 가능
택배·배송비	택배사 세금계산서	증빙 있으면 가능
상품 매입	매입 세금계산서	가능 (수출용 매입도 환급)
플랫폼 수수료	플랫폼 세금계산서	증빙 있으면 가능

이 넷이 온라인 셀러의 상시 경비입니다. 여기에 붙은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 매입세액 공제이고, 증빙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넌 부가세를 돌려받는 효과**가 생깁니다.

핵심 습관 하나

사업 관련 지출은 사업자 명의로, 증빙이 남게 결제합니다. 개인 체크카드로 대충 사면 나중에 경비로 넣기 어려워집니다.

확인 포인트 · 경비 인정과 매입공제 여부는 지출 성격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접대성 지출이나 개인 사용분은 특히 그렇습니다.

중급 07

간이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는 시점

매출이 커지면 마주치는 갈림길입니다.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 1억 400만원**.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 전환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바뀝니다.

여기서도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입니다. 부가세를 뺀 매출로 계산하면 10%가 어긋납니다(초급 01 참조).

구분	간이과세	일반과세
자동전환 기준	직전 연도 1억 400만원 미만	1억 400만원 이상 → 다음 해 7월
부가세 신고	1월 연 1회	1월·7월 연 2회
매입세액 환급	공제만 일부, 환급 불가	제대로 공제·환급
전환 시 재고공제	—	보유 재고·자산 재고매입세액공제

전환이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매입이 많거나, 시설투자가 크거나, **해외 판매(수출·영세율)**가 많으면 매입세액 환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어 일반과세가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환 통지를 받으면

재고매입세액공제를 꼭 확인하세요. 간이에서 일반으로 바뀔 때 갖고 있던 재고·자산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놓치면 그대로 손해입니다.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가 안 되는 경우

기준 금액 아래여도 업종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됩니다. 셀러에게 해당될 수 있는 것은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하는 경우 포함)**, 제조업, 그리고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사업자에게 물건을 넘기는 비중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포인트 · 매출이 커지면 장부 의무도 걸립니다. 일정 규모를 넘으면 정식 장부(복식부기)가 의무가 되고, 장부 없이 대략의 비율로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의무가 아닌데 정식 장부를 쓰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중급 08

재택·1인 셀러 경비

집을 사무실 겸 창고로 쓰신다면, 집에 들어가는 돈 중 일부도 경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에 쓰는 비율만큼만**입니다.

경비 항목	처리 방법
자택 임차료·관리비	사업용 면적 비율만큼 반영
전기·수도·가스	사업 사용분 비율만큼 반영
휴대폰·인터넷	사업 사용 비율만큼 반영
포장재·부자재	사업용이면 경비 처리
촬영 소품·조명·장비	경비 처리 (고가 장비는 감가상각 대상일 수 있음)

택배박스, 완충재, 테이프 같은 부자재와 상품 촬영에 쓰는 소품·조명도 사업 경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증빙만 챙기시면 됩니다.

조심할 것

집·휴대폰·인터넷처럼 **개인 사용분과 섞이는 항목은 100% 다 넣으면 안 됩니다.** 비율을 대충 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이 비율과 경비 인정 범위는 실제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율은 미리 정해두고 근거를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절세 · 확장 리스크편

여기까지 오셨다면 매출이 커졌다는 뜻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세금도 커지고, 실수 한 번의 대가도 커집니다. 이 파트는 절세로 세금을 줄이고, 해외로 확장하고, 리스크를 피하는 법을 다룹니다.

-
- 1 여기서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 2 종합소득세 절세 설계
 - 3 해외판매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
 - 4 법인 전환 타이밍
 - 5 매출 신고 리스크
 - 6 직원을 쓸 때

고급 01

여기서부터는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초급과 중급에는 정해진 답이 있었습니다. 기한이 언제인지, 매출을 어떻게 잡는지, 증빙을 어떻게 남기는지. 고급은 다릅니다.

이 파트에서 다루는 것들은 전부 **본인의 숫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순이익, 생활비로 가져가야 하는 금액, 재투자 계획, 가족 구성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기준이 본인에게 안 맞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앞으로 나올 다섯 가지

주제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
종합소득세 절세 설계	소득 구간과 가족 구성에 따라 유리한 조합이 달라집니다
해외판매 영세율과 환급	증빙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환급이 막힙니다
법인 전환 타이밍	순이익만 보고 결정하면 대개 틀립니다
매출 신고 리스크	이미 지나간 신고는 되돌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직원을 쓸 때	요건이 매년 바뀌어 몰라서 못 받는 공제가 많습니다

공통점, 그리고 이 파트를 읽는 법

전부 **한 번의 실수가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매출이 작을 때는 몇만원이었지만 여기서는 판단 하나에 몇백, 몇천만원이 오갑니다. 농친 경비를 찾고, 받을 공제·환급을 챙기고, 위험한 신고를 미리 막으면 내는 돈보다 아끼는 돈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확인 포인트 · 아래 장들을 읽다가 “내 경우는 어떻게 되지” 싶은 지점이 나오면 거기가 물어볼 타이밍입니다. 연락처는 맨 뒤에 있습니다.

고급 02

종합소득세 절세 설계

종합소득세의 핵심은 한 줄입니다. **순이익 = 매출 - 경비**. 매출이 같아도 경비를 제대로 잡으면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첫째, 경비를 빠짐없이

사입비·택배비·포장재·광고비·임대료·통신비·수수료처럼 사업에 쓴 돈은 증빙만 남기면 대부분 경비가 됩니다. 사업용 카드 하나를 정해 그것으로만 결제하고, 현금만은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됩니다.

둘째, 공제를 조합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노란우산공제**입니다. 폐업·노후에 대비한 목돈을 모으면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소득 구간별로 나뉩니다.

해당 과세연도 사업소득금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사업소득금액**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연금저축·IRP 같은 연금상품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따로 보지 말고 **소득 구간에 맞춰 조합**해야 하며, 무작정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늘 정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란우산과 연금이 **소득을 깎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라면, 다음 장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세금 자체를 깎습니다**. 효과가 비교가 안 됩니다.

확인 포인트 · 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소득 구간마다 다릅니다. 한도까지 채우는 것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니 본인 숫자로 확인하세요.

고급 02 · 이어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초기 셀러가 놓치면 가장 아까운 제도입니다. **통신판매업은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율은 창업 시점, 지역, 청년 여부로 갈립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청년창업	그 외
수도권 밖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00%	50%
수도권 (과밀억제·인구감소 제외)	75%	25%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0%	해당 없음

감면세액 합계는 **연 5억원** 한도입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받을 수 있는 길

그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억 400만원 이하**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위 표의 지역별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셀러에게는 이 조항이 실질적인 통로입니다.

이런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폐업 후 같은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경우,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처럼 새로운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확인 포인트 · 감면율·지역 구분·수입금액 특례는 **창업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개정이 잦습니다. 위 표는 2026년 이후 창업분 기준입니다.

고급 03

해외판매 영세율과 부가세 환급

해외 소비자에게 파는 것(역직구)은 세법상 **수출**로 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0%)**이 적용됩니다.

구분	판매 시 부가세율	매입세액
국내 일반과세 판매	10%	공제 (상계)
수출(역직구) 영세율	0%	공제 · 환급 가능
면세	과세 대상 아님	공제 불가

면세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면세는 아예 부가세 세액 밖이라 매입세액도 못 돌려받습니다. 영세율은 세율만 0%이고 매입세액은 그대로 공제·환급받습니다. 사입할 때 낸 부가세가 그대로 살아있어 **돌려받는 구조**가 되고, 수출 비중이 크면 신고 때 오히려 환급이 나기도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영세율도 없습니다

수출신고필증, 해외 플랫폼 정산·판매 내역, 외화 입금 내역, 배송 증빙을 모아두셔야 합니다. 정산 화면 캡처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대행이면 매출부터 다릅니다

같은 해외 관련 판매라도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매출로 잡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조	매출로 잡는 금액
내가 사서 파는 것	고객 결제 금액 전체
대신 사주고 수수료만 받는 것 (구매대행)	받은 수수료만

위탁매매나 대리인을 통한 매매는 **위탁자 본인이 직접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대행하는 쪽은 재화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물건값이 아니라 수수료가 매출이 됩니다.

확인 포인트 · 구매대행인데 물건값 전체를 매출로 잡으면 간이·일반 판정과 감면 한도까지 어긋납니다. 반대로 사서 파는 구조인데 수수료만 신고하면 매출 누락입니다.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거래 형태로 갈리니 애매하면 확인하세요.

고급 04

법인 전환 타이밍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정 구간을 넘으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지점**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법인은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번 돈이 다 내 돈이지만, 법인은 대표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와야 하고, 그때 또 소득세가 붙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만 보면 유리해 보여도, **그 돈을 내 주머니로 꺼내는 단계까지 계산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
세율 구조	누진세 (소득 커질수록 급증)	상대적으로 낮게 시작
번 돈 사용	자유롭게 사용	급여·배당으로만 인출
인출 시 세금	추가 없음	급여·배당에 소득세 추가
회계·신고	상대적으로 단순	복잡 (장부·법인세·원천세)
대외 신뢰·투자	제한적	유리

판단할 때 봐야 하는 것

순이익 규모, **생활비로 실제 얼마를 가져가야 하는지**, 재투자 계획, 가족 구성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순이익 얼마 넘으면 무조건 법인”은 본인에게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법인 전환은 한 번 하면 되돌리기 번거롭고, 전환 방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시뮬레이션할 시점이라는 신호입니다.

고급 05

매출 신고 리스크

온라인 셀러는 특히 투명합니다. 오픈마켓, PG사(결제대행사), 카드사의 정산 데이터가 **모두 국세청으로 흘러갑니다.**

가장 흔한 문제가 매출 누락입니다. 현금매출이나 개인 계좌로 따로 받은 매출을 신고에서 빼놓는 경우입니다. 플랫폼 정산액과 신고 매출이 맞지 않으면 전산으로 걸러집니다.

항목	부담	비고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무신고
부정무신고 가산세	40%	고의로 숨긴 경우
부정무신고 · 역외거래	60%	해외판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납부지연 가산세	1일 10만분의 22	널 때까지 매일 누적 (연 약 8%)

원래 널 세금에 이 가산세가 없습니다. 안 걸릴 것을 기대하고 뺐다가 몇 배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모든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고, 대신 **경비를 제대로 챙겨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 그리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 매입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계약서, 정산 내역이 나중에 소명할 때 본인을 지켜줍니다.

확인 포인트 · 이미 누락이 걱정되는 매출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먼저 정리하는 쪽이 훨씬 가볍습니다.** 자진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받고, 빨리 할수록 감면 폭이 큼니다.

고급 06

직원을 쓸 때

사람을 쓰기 시작하면 신고가 한 단계 복잡해집니다. 세 가지를 아셔야 합니다.

항목	내용	핵심
원천세	직원 세금을 떼서 대신 납부	보통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4대보험	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가입	사업주 부담분까지가 진짜 인건비
고용 관련 세액공제	고용을 늘리면 감면·지원	요건 매년 변동, 몰라서 못 받기 쉬움

원천세는 매달 돌아옵니다

월급을 줄 때 직원 소득세를 미리 떼서 대신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때도 따라옵니다.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인건비는 월급이 전부가 아닙니다

4대보험의 **사업주 부담분**이 생각보다 큼니다. 월급만 보고 사람을 뽑으면 예산이 틀어집니다. 인건비는 반드시 **월급 + 사업주 부담분**으로 계산하세요.

이름 하나만 기억해두세요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전년보다 늘리면 여러 해에 걸쳐 세금을 깎아줍니다. 요건과 금액이 매년 바뀌므로, 이름만 기억했다가 “저 이거 대상 되나요” 하고 꼭 집어 물어보시면 됩니다.

확인 포인트 · 원천세·4대보험 요율과 고용 관련 공제 요건은 매년 바뀌고 사업장마다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그해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세금 문의

이 책이 하려던 것은 세금을 전부 혼자 하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물어봐야 할지 아는 사람**이 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조를 알아야 좋은 질문을 하고, 좋은 질문을 해야 제대로 된 답을 받습니다.

읽다가 “내 경우는 어떻게 되지” 싶은 지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것을 도와드립니다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매출 집계와 부가세 신고, 해외판매 영세율과 환급, 종합소득세 절세 설계, 법인 전환 시뮬레이션, 지난 신고 점검과 경정청구·수정신고.

초도 상담은 무료입니다. 플랫폼 자료만 있으면 확인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전화	010-9171-2732
카카오톡 상담	pf.kakao.com/_KfjKX/chat
네이버 톡톡	talk.naver.com/WRLHYY5
블로그	blog.naver.com/partnertax25
사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 금산빌딩

세무법인 서진

Seojin Tax Account Consulting

이룡권 세무사

본 자료 작성 및 감수 · 스마트스토어 세무 시리즈 연재 중

© 2026 세무법인 서진 · 이룡권 세무사

이 자료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파일 그대로 공유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필요한 분께 전해 주세요. 다만 내용을 고치거나 일부만 떼어 쓰는 것, 출처 표시를 지우고 사용하는 것,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특정인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8월 기준이고, 세법은 매년 개정되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플랫폼의 화면과 정책도 수시로 바뀝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임 보수는 상담 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